세계도시

2006. 12. 18 제157호

목 차

벤치마킹 사례

런던의 스포츠 소외계층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지원정책

도시경영·경제

1. 도시경제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휴일 쿠폰 발행 시스템 도입 (캘리포니아州 산마테오市)
2. 관광객을 위한 심야버스 운행 (시드니)
3. 건축물 및 디자인 탐방 무료 이벤트 (뉴욕)
4.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무담보 소액대출제도' 운용 (브라질 포르투알레그레市)
5. 주택 구입능력 증진을 위한 정부기구 탄생 (영국)
6. '커티삭' 개조복원사업을 관광상품으로 개발 (런던)
7. 개방적인 자세로 금융센터 구축 (상해)

복지·문화

8. 특기를 가진 시민을 자녀양육 인재뱅크에 등록 (일본 가와사키市 아소區)
9. 보육원 대기 아동 해소를 위해 '보육 엄마' 제도 창설 (오사카)
10. 실직자를 이용한 야간 주차관리제도 시행 (북경)

도시환경

11. 미국 최초의 온실가스 배출 모범도시로 등록 (샌프란시스코)
12. 페트병 10개를 4엔(약 32원)에 회수 (동경 아다치區)
13. '세계 대도시 기후 선도그룹'에 참가 (동경)
14. 야간공사와 경적 등 소음관리규정 강화 (북경)

도시교통

15. 브라질 최초의 자동차 정보 확인 시스템 도입 (브라질 상파울루市)
16. 뉴욕지역 광역교통국의 운임인상안 철회 (뉴욕)

도시계획·건설·주택

17. 도시재개발 혜택 중산층에 집중 (영국 리버풀市)
18. 새로운 도시계획시스템 법령 도입 (영국)
19. 영국 최초의 가변주택계획 허가 (영국 밀턴케인스市)
20. 새로운 차이나타운 건설계획 허가 (런던 브렌트區)
21. 증가하는 학생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주택건설 필요 (스코틀랜드 에든버러市)
22. 천안문 앞 첸먼 따자란거리 관광문화거리로 재탄생 (북경)

벤치마킹 사례

런던의 스포츠 소외계층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지원정책

<주요 내용>

런던에서는 빈부격차의 심화와 더불어 성별, 인종, 장애에 따른 스포츠 참여의 불평등이 두드러지고 있다. 영국 전역의 스포츠 참여율을 보면 여성의 스포츠 참여가 남성보다 14% 낮고, 흑인과 소수인종의 스포츠 참여가 백인보다 6% 낮으며, 비(非)장애인의 59%가 스포츠에 참여하는 반면 장애인의 38%만 스포츠에 참여하고 있다. 스포츠에 참여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소득, 성별, 장애, 연령과 관계가 있다. 이에 런던市는 스포츠 참여의 불평등을 해결하고자 소외계층에 대한 스포츠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런던市는 스포츠 소외계층이 스포츠 활동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참여를 방해하는 장애물을 제거하고, 접근이 어려운 사람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다용도 스포츠클럽의 24시간 개방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외에 장애인의 공공체육시설 접근을 위한 경사로를 설치하고 화장실 시설과 직원의 자질을 개선하고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체육시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대중교통을 활용하고 대중교통 운영기관에 보조금을 지급한다. 이처럼 런던市는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스포츠 참여에서도 소외된 계층의 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회 단위에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왼쪽 위) 런던의 어린이체육, (왼쪽 아래) 장애인 축구, (오른쪽) 휠체어 농구

<해설 및 평가>

런던市는 중기 스포츠계획(2004~2008)에서 런던시민의 구체적인 운동 목표로 최소한 일주일에 3회 이상, 30분 이상의 운동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조사 결과 런던시민의 약 22.5%만이 건강에 도움이 될 만한 체육활동을 하고 있고 대다수 시민들은 운동량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런던은 영국에서 가장 다양한 인종이 모여 사는 다국적 도시로 30%의 인구가 흑인 및 소수인종으로 구성돼 있다. 그리고 50개 이상의 인종별 지역사회가 있고 300여 개 언어가 통용되고 있다. 따라서 런던에서는 스포츠 참여를 저해하는 빈곤, 문화, 종교, 범죄, 교통 문제 등 사회·문화적 장애물을 제거하고, 접근성이 떨어지는 계층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서울시정의 현황과 문제점>

서울에서도 성별, 연령, 소득, 장애에 따른 스포츠 참여의 불평등과 스포츠활동 불참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증가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1997년 시민복지 5개년 종합계획에서 1자치구 1구민체육센터 건립계획 이후 평균 區당 1.3개의 체육시설을 확보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간 편차가 있을 뿐 아니라 스포츠 참여에 대해 공공 차원에서의 지원이 없어 여성, 노인, 저소득층, 장애인이 스포츠 소외계층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이들이 차별 없는 스포츠서비스 혜택을 받으려면 소외계층의 욕구와 수요에 맞춘 차별화된 지원방안이 필요하다.

<벤치마킹 시행방안>

스포츠 소외계층의 스포츠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해 공공체육시설을 24시간 개방해 원하는 시간에 이용하도록 하고, 스포츠카드를 도입해 스포츠 소외계층에게 무료나 할인금액으로 이용하도록 한다. 이 방안을 시행하면 서울시민의 스포츠활동 참여의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꼽히는 경제적 요인과 시간부족 요인을 다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우선 시범지역을 선정해 공공체육시설 24시간 개방과 스포츠카드 제도를 시행하고 점차 확대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장애인을 포함해 스포츠 소외계층은 스포츠시설에 대한 접근이 어려워 스포츠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으므로 이동수단의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공공체육시설에서 장애인의 이동권에 대한 지원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시설 이용 시 스포츠 활동을 위한 도구 사용이나 프로그램 참여 등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측면에서 배려가 필요하다. 스포츠 소외계층은 정보 부족으로 스포츠 참여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용가능한 스포츠시설 및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가 스포츠 참여를 높이는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이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홍보활동이 필요하다.

최근 서울에서는 외국인과 외국인노동자 유입인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건강관리가 안 되고 있다. 또한 정보 부족과 여러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스포츠활동 참여가 어려워 새로운 스포츠 소외계층으로 등장하고 있다. 외국인의 스포츠 활동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외국인 커뮤니티에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고,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벤치마킹 기대효과>

스포츠 소외계층의 스포츠시설 접근성 제고를 통한 스포츠 참여 활성화는 노인, 여성, 저소득층, 장애인, 외국인 등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첫째, 체육시설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계층의 이동과 접근성 문제 해결이 기대된다. 둘째, 서울市의 소외계층은 곧 건강 취약계층과도 일치할 정도로 소외계층의 만성질환 유병률 문제가 심각하다. 이 상황에서 소외계층의 스포츠 참여 접근통로 확대를 통해 건강 증진과 의료비 감소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감소에 기여할 수 있다. 셋째, 여성, 노인, 장애인, 외국인 등 사회계층별로 차별화된 프로그램 제공이 가능하며 이들의 사회 통합에 기여할 수 있다. 넷째, 소외계층의 스포츠 참여 활성화로 주5일 근무제 시행으로 야기되는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의 여가 소외문제 해결과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이 기대된다.

/노은이 도시사회부 부연구위원(eyn@sdi.re.kr)

도시경영 · 경제

1. 도시경제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휴일 쿠폰 발행 시스템 도입 (캘리포니아州 산마테오市)

미국 캘리포니아州 산마테오市는 도시경제 활성화를 위해 무료로 온라인 휴일 쿠폰 발행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것은 시민들이 市 홈페이지에서 휴일할인행사 기간에 할인 쿠폰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다. 산마테오市 중소형 상점의 매출을 높여 도시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이 시스템 도입 취지다. 이로 인해 중소형 상점의 매상이 오르고, 市는 상품 판매에 대한 세금을 더 많이 거둘 수 있다. 통상 미국의 휴일기간에 대형 상점의 적극적인 할인행사로 이들의 매상은 오르는 반면, 중소형 상점의 매상은 저조하다. 따라서 온라인 할인 쿠폰 시스템은 고객의 발길을 중소 상점으로 돌리게 하는 역할을 한다. 市 홈페이지 이용자가 증가해 온라인상 市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더 많은 시민이 받을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산마테오市는 온라인 휴일 쿠폰 시스템의 정착으로 최근 도시마케팅협회에서 상을 받기도 했다. (www.ci.sanmateo.ca.us/hotspot/press_release.html)

>>> 전문가 검토의견

우리나라에서는 대형 유통업체와 인터넷 및 홈쇼핑업체의 증가로 전통적인 중소형 상점의 영업기반이 위축되고 있다. 대형 유통업체와 인터넷 및 홈쇼핑업체는 거래 편의성과 가격 경쟁력이 있을 뿐 아니라 DM, TV방송, 인터넷과 같은 광고 매체를 이용해 명절, 연말 등 성수기에 세일가격을 활발하게 알리고 있다. 캘리포니아州 산마테오市가 중소상점의 할인쿠폰을 시의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은 광고능력이 부족한 지역 중소상공인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에게 유익한 가격정보를 효율적으로 전달한다는 의의가 있다. 서울市는 市 단위보다는 자치구 단위 혹은 그보다 낮은 지역단위에서 이러한 지역밀착형 정보 제공 및 중소상공인 지원제도를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

/윤형호 도시경영부 연구위원(younh@sdi.re.kr)

2. 관광객을 위한 심야버스 운행 (시드니)

호주 시드니市는 관광오락특구(Tourism and Entertainment Precinct)인 킹스 크로스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2006년 12월 1일부터 심야 버스를 운행키로 했다. 새벽 1시부터 5시까지 20분마다 시드니市 중심가와 킹스 크로스를 운행하는 특별 심야버스는 우선 관광객이 많은 금요일과 토요일 밤에만 운영하되 효과에 따라 평일에도 확대할 예정이다. 킹스 크로스 특구는 유흥업소가 밀집돼 있는 지역으로 국내·외 관광객들이 전철과 버스가 운행을 종료한 뒤에 밤늦게까지도 방문해 즐기는 장소였으나, 그간 전철과 버스운행이 종료된 뒤에는 택시 외에는 교통수단이 없어 이용객들의 불편과 불만이 많았다.

(cityofsydney.nsw.gov.au)

>>> 전문가 검토의견

서울市 관광에서 매우 취약한 부분의 하나가 야간관광이다. 내세울 만한 야간관광상품도 자원도 별로 없다. 서울이 낯선 외국인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만한 무임 및 유임 교통수단도 변변치 못하다. 현재 하루에 두 편만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티투어버스의 야경코스는 서울타워 외에는 강변도로를 따라 버스 안에서 구경하는 것이 전부인데 서울타워에서 하차해 타워에 올라가 서울야경을 구경하려면 그날 밤 걸어서 남산에서 내려와야 한다. 그나마 편리성을 포기하고 밤에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하철조차 자정이 넘으면 끊어진다. 서울이 낯선 외국인들에게 서울의 밤은 그들을 더더욱 쓸쓸한 이방인으로 만드는 게 서울의 현실이다. 야간관광상품 개발과 상품들을 쉽고 편리하게 접근하게 해주는 관광시스템 등 서울에 시급한 과제들이 여기저기 많이 산재해 있다. 시드니의 사례는 이제 걸음마 단계의 서울보다 한참 앞서서 달려가는 선진관광도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금기용 도시경영부 부연구위원(kykeum@sdi.re.kr)

3. 건축물 및 디자인 탐방 무료 이벤트 (뉴욕)

올해로 4번째를 맞는 오픈하우스 뉴욕이벤트(Open House New York)가 2006년 10월 7~8일 주말에 뉴욕의 5개 자치구(Borough) 곳곳에서 펼쳐졌다. 이 행사는 뉴욕市의 건축물 및 도시 디자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의미를 되짚어 보기 위해 마련됐다. 평소에는 개방되지 않거나 유료로 개방되던 개인소유의 집이나 박물관 혹은 건축물들이 이벤트 기간에는 무료로 개방되며 곳곳에서 퍼포먼스 공연과 아이들을 위해 건축가, 디자이너, 예술가들의 특별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오픈하우스 측에서 계획한 투어에 참가거나 개인적으로 가고 싶은 곳을 정해 따로 방문할 수 있다. 뉴욕市의 5개 자치구(Borough)에 있는 백여 곳의 행사장소를 쉽게 방문할 수 있도록 뉴욕의 수상택시 및 대중교통체계 연결에 대한 자세한 정보도 함께 제공되며 이러한 정보는 이동시간 스케줄 관리와 혼잡통행 완화에 도움을 준다.

뉴욕에서 생활하면서도 다양한 뉴욕의 명소를 방문하지 못했던 시민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면서 뉴욕에 대한 자긍심을 높여주는 이 행사는 지난 2003년부터 시작됐다. 올해의 행사도 성공적으로 진행됐으며, 2007년에는 10월 6~7일 이틀에 걸쳐서 진행될 예정이다.

(www.ohny.org)

4.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무담보 소액대출제도' 운용 (브라질 포르투알레그레市)

브라질 포르투알레그레(Porto Alegre)市는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2006년 12월부터 '포르투알레그레 마이크로 크레디트'(Micro Credit) 운용을 시작한다. 무담보 소액대출제도인 '마이크로 크레디트' 프로그램은 창업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이 있으며, 州정부와 국립은행, 노동 당국, 주민참여예산제도 자문위원회 등의 후원을 받게 된다.

포르투알레그레市는 단지 마이크로 크레디트 수요에 대한 안내에만 그치지 않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역발전 전문가를 양성해 마을과 직접 연결해 창업 희망자 확인과 창업자본 대출 수요 등을 분석하게 된다. 전문가에 의해 선출된 희망자들은 경영지도 및 창업 절차에 대한 교육을 받게 된다. 무담보 소액대출 대상은 중소기업인, 프리랜서, 상업계 전반, 자영업자 등이며, 성공 가능성이 있고 좋은 창업 아이템을 가진 희망자에게 대출금이 제공된다. 장비, 기계 구입 및 원자재, 재고 등의 순환자금, 사업장 건설 및 보수, 리모델링 공사, 자동차 할부금 등에 사용될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www2.portoalegre.rs.gov.br/cs/default.php?reg=69222&p_secao=3&di=2006-11-24)

5. 주택 구입능력 증진을 위한 정부기구 탄생 (영국)

영국 지역사회 및 지방정부부(Department for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는 시민들의 주택 구입능력(Housing Affordability)을 증진하기 위한 전담기구로 'National Housing and Planning Advice Unit'을 신설해 운영하기로 했다. 스티븐 니켈(Stephen Nickell) 옥스퍼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대표를 맡을 예정이며, 영국 국민의 주택 구입능력을 향상시킬 장기 정책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을 담당한다. 중앙정부는 물론 지역개발청, 런던시장 및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과도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 정책 연계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www.communities.gov.uk/index.asp?id=1002882&PressNoticeID=2281)

6. '커티삭' 개조복원사업을 관광상품으로 개발 (런던)

앞으로 2년간 2500만 파운드(약 454억 원) 예산이 투입되는 범선 '커티삭'의 개조복원사업 과정이 관광상품으로 개발돼 대중에 공개된다. 영국 문화매체체육부와 문화재복원복권기금(Heritage Lottery Fund)의 지원하에 커티삭 트러스트는 현재 그리니치 템스강변에 설치된 범선을 그 자리에 두고 복원 과정에 관광객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전망대를 설치하고 공사현장을 둘러볼 수 있게 하는 내부 투어 상품을 개발했다. 투어는 2007년 봄 이후에 가능하며 비용은 1회당 8파운드(약 1만 4400원)이다.

유리 보호막이 설치될 커티삭 복원예상도(지층, 범선위, 유리막 외형도)

(www.bbc.co.uk/london/content/articles/2006/11/08/cuttysark_feature.shtml)

7. 개방적인 자세로 금융센터 구축 (상해)

상해市에는 현재 340여 개 외자 및 중외합자 금융기구가 밀집돼 있고, 27개 외자은행 본부가 개설돼 있으며, 중국 전국 외자은행 본부의 2/3를 차지하고 있다. 2006년 9월 8일 중국 금융거래소 선물거래소가 상해市에서 정식으로 설립됐고, 얼마 전 영국 런던로이스(Lloyd's of London)사가 상해市 지점 설립을 발표했다. 이에 상해市는 자본, 화폐, 외환, 상품선물, 금융선물, 금, 재보험시장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현대 금융시장 시스템을 기본적으로 갖추게 됐고, 세계 주요 금융시장이 집결하기 시작했다. 이와 함께 상해市는 2010년을 목표로 국제금융 중심도시의 계획 요강을 발표하기도 했다.

(中國文匯報, 2006. 11. 7)

8. 특기를 가진 시민을 자녀양육 인재뱅크에 등록 (일본 가와사키市 아소區)

일본 가와사키市 아소(麻生)區는 보육이나 책 읽어주기 등 자녀양육과 관련된 특기를 가진 시민을 區 내 자녀양육 그룹 활동의 목적으로 '자녀양육 자원봉사자'로서 도와주는 '자녀양육 인재뱅크'에 등록시키는 제도를 도입했다. 아소區는 집에서 자녀양육을 하는 어머니들의 수가 다른 區보다 많고, 자녀양육 그룹의 자율적인 교류나 연구회도 왕성하다. 이 때문에 어머니들로부터 연구회 중에 보육이 필요하다는 요청과 체조, 음악 등 전문적인 자녀양육 지식과 놀이를 배우고 싶다는 요청이 많았다. 인재뱅크 운영 방법은 區가 위탁 운영하고 있는 인재뱅크에 자녀양육 자원봉사자와 자녀양육 그룹이 등록하도록 하고, 자녀양육 그룹이 인재뱅크에 파견을 요청하는 형태이다.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으며 부모와 자녀 5쌍 혹은 10명 이상이 참가하고 있는 등의 조건을 갖춘 그룹이면 등록을 할 수 있다. 이용은 원칙적으로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1회 3시간 이내이다.

(東京新聞 인터넷판, 2006. 11. 29)

>>> 전문가 검토의견

이 시책의 적용 가능성에 대해 자치구가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 대부분의 자치구가 자원봉사센터, 보육정보센터, 지역아동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기구를 만들기보다, 이들 기관들이 연계해 자녀양육 자원봉사자 양성과 등록 관리, 파견 등의 공동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신경희 도시사회부 연구위원(skhee@sdi.re.kr)

9. 보육원 대기 아동 해소를 위해 '보육 엄마' 제도 창설 (오사카)

오사카市는 2009년까지 보육원 입학에 필요한 아동수를 4만 2000명으로 계산하고, 입학 정원 확대를 위한 새로운 대책으로 공유재산을 보육원에 먼저 배정해 민간보육원을 정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나아가 市는 아파트에서 가정적인 분위기하에서 소규모 인원을 보육하는 '보육 엄마' 제도를 창설하고 지하철 역 근처의 임대 빌딩을 활용해 저연령 아동을 보육하는 분원(分園) 제도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확충하기로 했다. 또한 보육사업자에게 인센티브가 되는 보조 제도를 도입해 다양하고 종합적으로 대기 아동의 해소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오사카市는 일과 자녀양육의 양립을 지원해 왔으며, 안심하고 자녀를 낳아 기를 수 있는 사회 구축을 지향해 왔다. 보육소 대기아동 해소를 가장 중요한 정책의 하나로 설정해 민간보육원의 신설, 증개축, 분원 정비 등을 중심으로 최근 5년간 약 5600명의 입학 정원을 확대했으나 보육 수요는 높은 실정이다. 최근 아파트 건설 증가 등으로 새로운 보육 수요가 발생하는 한편, 市 전체적으로는 취학 전 아동수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장기적인 보육 수요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다. 그 결과 토지 취득 등 대폭 투자가 필요한 종전의 방법으로는 보육원 정비가 좀처럼 진척되지 않고 있음을 고려해 변동하는 보육 수요에 효과적이고 유연하게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www.city.osaka.jp/kenkoufukushi/pre/pre_311.html)

>>> 전문가 검토의견

민간보육시설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서울市의 보육환경은 공공시설위주로 운영하고 있는 일본과는 차이가 있지만 부족한 보육수요를 충족하고자 민간보육시설을 정비하는 오사카市의 다양한 시도들을 주의 깊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가정적인 환경에서의 보육을 선호하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보육엄마'와 같은 소규모의 가정보육을 공공보육서비스의 틀 안에 수용하고, 접근성이 높은 지하철 역 인근의 보육시설분원을 설치하는 것은 다양한 보육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역사회자원을 유연하게 활용하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김선자 도시사회부 부연구위원(sunjakkm@sdi.re.kr)

10. 실직자를 이용한 야간 주차관리제도 시행 (북경)

2007년 북경市의 80% 단위지역(社区)에서 야간 주차 방범관리 제도를 시행한다. 2006년 11월 24일 북경市 파출소 총치안부는 자동차 방범과 관련해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던 야간주차 방범관리 제도의 성과가 관련범죄의 24% 감소로 나타남에 따라 2007년부터 전 북경市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리인원 8000명이 증가하고 총인원이 6만 명까지 투입된다. 야간주차 방범관리에 해당지역의 실직자들이 이용된다. 자동차 소유자들에 대한 추가 부담은 없다. 2004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공안국의 지도아래 시범 단위지역에서 전문 관리업체를 선정하고 실시해 왔으며 현재까지 전 북경市 자동차의 50%에 해당하는 120만 대의 차량이 혜택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 150만 대까지 혜택이 확대될 예정이다. 해당 단위지역내의 실직자들의 신청을 받아 모집한 인력들은 앞으로 공안기관과의 협조 아래 방범 등의 업무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www.beijing.gov.cn/ggfw/jm/ggaq/zxbb/t699751.htm)

한줄 뉴스

- 상해市, 2006년 GDP 1조 위안(약 120조 원) 돌파 예상, 15년 연속 두 자릿수 성장

<북경>

- 환경보호국, 11차 5개년 발전계획에 따른 환경보호계획 발표
  - 2010년까지 도심지 이산화황 및 이산화탄소 연평균 농도를 국가 표준에 맞게 개선하고 수원지의 수질을 음용수 수준으로 개선
- 노동사회보장국, 2006년 11월 23일부터 창업지도센터를 통한 창업아이템과 자문업무 실시 강화
  - 28개 특허기술 항목과 8개 프랜차이즈 관련항목이 포함된 36개 창업 아이템 제공
- 수도 정신문화사업 판공실(首都精神文明办公室网站), 2006년 11월 28일 '수도 10대 착한시민 선발대회(首都十大公德人物)' 후보명단 발표
  - 인간과 인간, 인간과 사회, 인관과 환경 분야 30명의 후보자 명단 발표

도 시 환 경

11. 미국 최초의 온실가스 배출 모범도시로 등록 (샌프란시스코)

미국 캘리포니아州의 샌프란시스코市는 공공·민간 협력조직인 캘리포니아 기후 등록부에 미국 최초의 온실가스 배출 모범도시로 등록했다. 샌프란시스코市가 지구 온난화의 원인인 온실가스 배출 개선에 앞장서고 있음을 인정받은 것이다. 온실가스는 기후변화를 일으키고 있으며 해수면을 상승시켜 베이지역과 같은 해안도시를 위협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온실가스는 환경뿐만 아니라 경제를 약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샌프란시스코市의 주요 계획은, 우선 기후변화의 영향을 파악하고 대응 전략을 교통, 폐기물 관리, 에너지 효율성, 그리고 재생에너지 부문별로 수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계획은 또한 해수면 상승을 예측하고 이에 따른 고속도로, 하수 오물처리, 일반도로, 그리고 공항 등 인프라 관리방안과 대중교통수단의 배출가스를 줄이는 방안도 포함하고 있다. 앞으로 샌프란시스코市는 베이지역의 발전소 폐쇄를 계기로 태양열, 풍력, 그리고 조력 등을 이용한 전략 효율성 향상 계획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sfgov.org/site/mayor_page.asp?id=49226)

12. 페트병 10개를 4엔(약 32원)에 회수 (동경 아다치區)

동경都 아다치區에서는 빈 페트병을 회수기에 투입하면 어느 가맹점에서나 사용할 수 있는 쇼핑 포인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아다치區는 區 내에서 영업하고 있는 대형 슈퍼마켓의 협력으로 회수 사업에 힘을 쏟고 있다. IC카드를 활용해 페트병 10개에 4엔(약 32원)의 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 체제를 갖췄다. 이러한 방식을 확대해 올해 안으로 16개 점포로 늘리고, 2008년에는 회수기를 매장 면적 1000㎡ 이상의 슈퍼마켓 50곳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아다치區는 독자적으로 페트병을 회수해 왔는데 2005년도의 회수율은 50% 정도였다. 아다치區는 포인트제도 도입을 통해 캔이나 병의 회수율 수준인 80~90%로 높일 계획이다. 에구치 환경부장은 "세금을 사용하는 회수비용을 억제하고, 민간이 회수 가능한 틀을 만들려고 한다. 그러려면 소비자에게 회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슈퍼마켓에 설치된 페트병 자동회수기

아다치區는 회수기를 개발한 기업에게 기계의 설치부터 운반, 재활용까지를 모두 위탁하고 있다. 위탁 비용에는 쇼핑 포인트 부가분까지 포함돼 있는데, 그렇게 해도 회수 단가는 종전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회수기가 페트병을 분쇄해 용적을 1/10로 압축하기 때문에 운반비용이 크게 절약된다. 한편, 일부에서는 재활용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를 좋게 평가할 수 있지만 그 비용을 세금으로 부담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페트병 등 포장용기의 재활용에 대해서 생산자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東京新聞 인터넷판, 2006. 11. 24)

13. '세계 대도시 기후 선도그룹'에 참가 (동경)

이시하라(石原) 동경都지사는 캔 리빙스턴 런던시장과 두 도시의 공통적인 정책과제 해결을 위한 실무적인 협력관계를 도모하는 협정을 체결했다. 이와 관련해 동경都는 런던 부시장의 제창으로 창설된 '세계 대도시 기후 선도그룹'(The Large Cities Climate Leadership Group)에 참가하기로 했다. 이것은 세계의 도시가 연대해 온실가스 배출삭감에 노력하기 위한 네트워크다.

동경都는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이산화탄소 반감 도시 모델' 실현을 제창했다. 이를 위해서 2007년 초에 총괄적인 추진조직을 설치해 都政 전반에서 이산화탄소 대폭 삭감을 지향하는 새로운 10개년 프로젝트를 개시할 계획이다. 녹지를 대폭 확대하고 자연 에너지를 다량 보급해 민간기업과 도민이 함께 참여해 동경을 세계에서 가장 환경부하가 적은 도시로 만들 계획이다.

(www2.kankyo.metro.tokyo.jp/sgw/lcclg/lcclg.html)

14. 야간공사와 경적 등 소음관리규정 강화 (북경)

북경市는 시민들의 고질적인 환경미원이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 문제가 아니라 소음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들의 숙면과 휴식을 방해하는 소리오염과의 전쟁'을 시작했다. 2005년의 환경민원 중 소음에 대한 민원신고가 50% 이상을 차지함에 따라 2006년 11월 17일에 북경市 상무회의는 건축공사장 소음, 인테리어 공사소음, 교통소음, 상가소음 등에 관한 북경市 소음공해 방지규정(北京市噪声污染防治办法)을 통과시켰다. 규정의 내용 중에는, 자동차 방범장치의 오작동으로 경보음이 울려 주변지역 시민의 숙면을 방해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개선대책으로 기준미달의 자동차 방범경보장치 설치 시 벌금을 부과하는 조항과 상가 점포의 확성기를 이용한 판촉활동 행위에 대해 불금을 부과하는 조항이 있다. 나아가 최근 급증하는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에 따른 소음 민원 대책으로서 아침, 야간, 공휴일의 인테리어 공사 금지, 최근 1만 2000곳 이상에 달하는 북경시내의 공사장에서의 야간작업 금지, 교통 소음인 경적사용 금지 등의 규정이 포함됐다.

(北京日報 2006. 11. 20)

한줄 뉴스

- 영국, 2007년 9월까지 지방정부별로 달리 사용하던 도시계획 신청서의 양식을 표준화하기로 결정

<런던>

- 800년 역사를 자랑하는 시장(Lord Mayor of London) 취임 축하 행사 개최
- 2006년 10월부터 12월까지 영국전역에서 이야기 축제인 'Story Quest' 행사 개최
- 유로스타와 런던관광공사 주관 '2006 런던관광대상' 시상식에서 17개 공식부문 수상자와 4개 부문 인기상 발표
- 런던주택협회, 가족유대를 장려하기 위한 패밀리형 주택건설 필요성 역설

도 시 교 통

15. 브라질 최초의 자동차 정보 확인 시스템 도입 (브라질 상파울루市)

브라질 상파울루市는 국내 최초로 자동차 정보 확인 시스템을 도입한다. 市정부는 민간분야와의 협력으로 운전자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市정부의 추가 예산지출 없이 시스템 도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자동차 정보 확인 시스템을 위한 칩은 자동차 내부 앞부분 오른쪽에 장착된다.

교통자문위원회(Contran)는 자동차 정보 자동 확인 시스템(Siniav) 도입 의무화를 발표하면서, 상파울루市 연방區를 비롯한 州정부들에게 18개월 후인 2008년 5월부터 칩 장착 작업을 시작하라고 지시했다. 칩 장착 작업이 시작된 후 42개월 내 모든 도입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연방정부에서는 동일 시스템을 통해 전국 4300만 대 차량의 정보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칩에는 연방정부도 사용할 수 있는 메모리가 할당되며, 할당된 메모리에 교통법규 위반 및 과태료 미납 등의 정보가 등록된다. 또한 칩을 장착하는 서비스를 맡게 될 민간업체들과의 협력으로 도난방지용 추적 시스템 설치도 가능하다. 이와 같은 시스템은 톨게이트요금 자동지급 등에도 사용할 수 있다. 자동차 생산업체협회에서는 이번 정책이 범죄 예방 등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평가했다.

(www.prefeitura.sp.gov.br/portal/a_cidade/noticias/index.php?p=13487)

>>> 전문가 검토의견

이 시책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서울市에서 전면적으로 추진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칩에 할당된 메모리에 차량의 정보뿐만 아니라 소유주의 정보도 연계해 포함될 것이므로 일반적인 리더기로도 쉽게 이들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량의 도난방지 또는 긴급상황 발생에 대한 조치 등 공공의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면 유익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휴대폰을 이용한 개인의 위치정보도 위치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의 동의를 얻거나 긴급상황 발생 시에 타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한정하고 있다. /신성일 도시교통부 연구위원(ssi@sdi.re.kr)

16. 뉴욕지역 광역교통국의 운임인상안 철회 (뉴욕)

MTA(Metropolitan Transportation Authority, New York)는 뉴욕市의 5개 자치구(Borough)와 뉴욕州의 남동부 지역 일부 및 롱아일랜드, 그리고 코네티컷州를 포함한 총 1만 3000㎢ 내에 있는 인구 1460만 명을 대상으로 지하철과 버스, 기차를 포함한 연간 24억 통행량을 제공하는 미국 최대의 광역교통 운영단체이다. 2006년 9월 20일 MTA에서 2007년 예산 중 2000만 달러(약 185억 원) 삭감에 대한 제안을 언론에 내비쳤다가 9월 26일 MTA 대표인 피터 칼리코우(Peter S. Kalikow)가 제안을 철회하는 소동을 겪었다. MTA의 일부에서 2008년부터 시작될 예산 부족을 대비해 2007년의 예산을 삭감하고 여기에 더해 5%의 운임 인상을 주장했으나 시민단체들의 거센 반발과 MTA내의 반론에 의해 예산삭감 및 운임인상안은 철회됐다. 예산삭감에 따라 한산한 시간에 버스 및 지하철 배차시간이 1~5분 정도 길어지며, 중장거리 통행자는 10분, 야간기차는 10~20분간 배차시간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제안의 취소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끼친 원인은 지난 10년간의 대중교통 이용률의 증가와 2005~2006년간의 운영흑자(2005년 운영흑자: 10억 1800만 달러<약 9400억 원>)이었다. MTA의 자료에 의하면 뉴욕市 인구가 12% 증가한 데 비해 지하철 이용객 수는 1995년 1조 640억 명에서 2005년 2조 1860억 명으로 36% 증가했다. 하지만 대중교통의 계속적인 이용률 증가가 이어지지 않는다면 2008년도 예산삭감 및 운임인상에 대한 논쟁이 다시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www.mta.info/mta/news/releases06/index.html?en=060926)
(www.mta.info/mta/investor/pdf/2005_annual_report.pdf)

17. 도시재개발 혜택 중산층에 집중 (영국 리버풀市)

영국의 ESRC(Economic & Social Research Council)는 도시재개발과정에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주로 서민층보다는 중산층의 사람들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리버풀 한 지역 조사를 근거로, 보고서는 서민층은 주택을 투자 가치보다는 생활 터전으로 보는데 반해 중산층은 미래의 잠재적 경제적 가치로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적고 있다. 결국 서민층이 재개발의 혜택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regennet.hbpl.co.uk/pp/news/index.cfm?fuseaction=FullDetails&articleUID=8445f042-cced-4f7a-a970-e194e8fec68d&e=1)

18. 새로운 도시계획시스템 법령 도입 (영국)

영국 총리는 현재의 관료적 도시계획시스템의 개혁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새로운 도시계획시스템 법령을 곧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새로운 시스템은 기존 도시계획시스템을 전체적으로 분석 평가의 대상으로 하고 있어 도시계획관련 종사자의 주목을 받고 있다. 블레어 총리는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가 기존의 도시계획시스템에 의해 비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오히려 도움보다는 방해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대변인은 새로운 도시계획시스템 법령은 상당한 수준으로 기존 도시계획 틀을 간소화시킬 것이라고 전했다.

(regennet.hbpl.co.uk/pp/news/index.cfm?fuseaction=FullDetails&articleUID=e4fae23e-50d3-4022-8c50-d9ca6689ae0e&e=1)

19. 영국 최초의 가변주택계획 허가 (영국 밀턴케인스市)

밀턴케인스 파트너십은 타텐호 공원(Tattenhoe Park)에 영국 최초로 가변(可變) 벽 구조를 통해 방의 크기와 수를 조절할 수 있는 가변주택(flexible housing) 1300호를 허가했다. 가변주택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족의 수와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2007년 1월 시작예정인 이 계획은 현재 계속해서 기술적인 평가를 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건축가와 주택 개발업자에게 배포할 것이라고 전했다.

(Planning, 2006. 11. 21)

20. 새로운 차이나타운 건설계획 허가 (런던 브렌트區)

영국 런던市 브렌트(Brent)區는 기존의 오리엔탈 시티(Oriental City)의 확장과 함께 런던의 새로운 차이나타운 건설을 허가했다. 기존 오리엔탈 시티 중국인 종사자들의 반대가 있는 가운데, 개발업자는 새롭게 조성되는 차이나타운은 11만 2000㎡에 가게, 상업시설, 520호의 주택, 학교가 조성되며 브렌트區의 재개발에 활력을 줄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중국계 주민들은 대규모 재개발계획은 오히려 차이나타운의 정체성을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구청이 재개발 허가를 반려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Planning, 2006. 11. 23)

21. 증가하는 학생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주택건설 필요 (스코틀랜드 에든버러市)

최근 Hariot-Watt 대학은 에든버러市의 늘어나는 학생인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학생들을 위한 주택건설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에든버러市의 마치몬트(Marchmont)와 톨크로스(Tollcross) 지역은 인구의 반이 학생이다. 대학 당국은 학생 증가와 학생들에 의해 발생하는 다양한 생활방식을 반영하는 도시계획적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학생들이 즐길 수 있는 주택시설의 조성이 요구된다고 전했다.

(Planning, 2006. 11. 27)

22. 천안문 앞 첸먼 따자란거리 관광문화거리로 재탄생 (북경)

최근 자금성 천안문광장 첸먼(前门)앞에 있는, 유서 깊은 따자란(大栅栏)이 관광문화거리로 정비돼 시민에게 공개됐다. 과거 좁고 지저분한 상점들과 복잡한 거리로 자금성과 천안문을 찾는 많은 관광객과 외국인들에게 불편을 끼쳐왔으나 북경市는 도시정비계획의 일환으로 천안문 앞 첸먼 대로변을 정비해 환경을 개선하고 전통문화와 현대가 조화를 이룬, 걷고 싶은 관광문화거리로 탈바꿈하고자 철거와 정비를 해왔다. 따자란은 유서 깊은 첸먼 상가 거리의 상징이지만 낡고 복잡한 환경과 더러운 거리로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정비를 끝낸 후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새로운 따자란의 건축물과 주변 환경은 많은 시민의 호응을 얻고 있으며 개조 후 새롭게 현대적 이미지로 변모해 찾아오는 관광객이 부쩍 늘고 있다.

(北京晚报, 2006. 11. 20)

한줄 뉴스

- 샌프란시스코市, 경력 있는 유능한 경찰관 모집을 위한 인센티브제도 도입
- 호주 시드니市, 노숙자 돕기 모금 운동에 참여를 신청한 음식점을 대상으로 테이블당 2호주달러(약 1400원)를 노숙자 돕기 기금으로 내는 운동 전개

<브라질 쿠리치바市>

- 인도 방갈로르市, 쿠리치바의 대중교통 시스템 벤치마킹하기로
-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2006년 11월 23일 수출 정보 관련 강연회 실시